

【 해외금융뉴스: 미국】

Bank of America, 2차 구제금융 결정

- 1월15일 Citigroup의 5분기 연속 적자 예상과 아일랜드 Top3 은행인 Anglo Irish Bank의 국유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증폭되자 미 상원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(TARP)기금(7,000억 달러)의 2차 사용분(3,500억 달러)을 52대42로 찬성하고, 미 정부는 BoA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함.
 - Citigroup의 2008년 4/4분기 적자는 60억 달러~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1월15일 Citigroup의 주가는 15% 하락함.
 - 아일랜드의 Top3 Anglo Irish Bank의 대량 예금인출과 추가폭락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Anglo Irish Bank의 부채 500억 유로(650억 달러)에 대한 정부보증을 실시하고 국유화 조치를 취함.
- BoA는 2008년 9월 투자은행인 Merrill Lynch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미정부로부터 2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바 있으며, 2차 구제금융은 150억 달러에 이르는 신규자본 보강과 1,000억 달러이상의 부실자산에 대한 정부 보증으로 구성됨.
 - 부실자산에 대한 정부 보증은 대략 1,000억 달러에서 1,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 - 부실자산 처리 계획에 따르면 BoA는 부실자산 처리의 1차적 책임을 지고, 재무부, FDIC, FRB가 순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설정됨.
- BoA의 입장에서는 2009년 1월1일 Merrill Lynch의 인수를 완료하면서 추가 구제금융지원을 약속받았으나, Merrill Lynch의 예상을 넘는 손실이 계약상의 중대한 부정적 조건(material adverse condition)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수계약을 해지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음.
 - 계약 자체가 해지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한 미 정부는 BoA에 대한 구제금융을 신속히 결정한 측면도 있음.
- BoA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 결정됨에 따라 AIG, Citigroup의 뒤를 잇는 미정부의 2차 지원의 사례를 남김.
 - 2차 이상 구제금융이 지원된 전례를 남김으로써 은행권의 추가적인 구제금융 요청도 예상되며, 이러한 상황은 향후 미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1/14, 1/15)